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 농촌을 중심으로*

박 은 민¹⁾

김 성 수²⁾

박 순 희³⁾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동신대 언어치료학과

동신대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출산 후 자녀 양육경험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경험을 비교하기 위해 농촌에서 자녀를 키우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15명과 한국인 결혼여성 15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기혼 여성들로 자녀가 있는 연구대상들을 면접하였으며 녹취한 내용은 Colaizzi 방법에 의한 연구절차에 따라 자료를 비교분석하여 범주화하였다. 자료를 범주화한 결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은 4개 범주, 7개 주제군, 19개 주제였으며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경험의 의미는 4개 범주, 8개 주제군, 19개 주제로 구성되었다. 최종적으로 도출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 경험의 4가지 범주는 ‘어머니 관련’, ‘자녀 관련’, ‘남편 관련’, ‘생활 관련’으로 나타났다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경험 의미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여 한국적응과 양육방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한국인 결혼여성, 양육경험, 현상학적 방법

* 2009년도 정부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9-32A-B00135).

1)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임강사

2) 교신저자 : 동신대학교 언어치료학과, 조교수 (E-mail : sskim@dsu.ac.kr)

3)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I. 서 론

지금 우리사회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이동하고 있다. 이 변화의 핵심은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른 것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특히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 남자와 결혼한 이주여성은 전체 인구 규모 면에서 볼 때 아직 작은 부분에 해당하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2020년 쯤에는 전체가구의 20%가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한다(통계청, 2010).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1년 초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여성은 중국(66,589명)과 베트남(35,884명)과 일본(10,599)에 이어 필리핀 이주여성이 7,731명으로 네 번째를 차지한다. 필리핀 여성들은 1980년대부터 종교적 연계에 의해 한국남성들과 결혼하여 이주하기 시작하였으며, 2000년대 들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제결혼이주를 하고 있다(김동엽, 2010). 필리핀은 실업문제 극복과 경제적 필요성으로 인해 개발이 아닌 인력수출에 의존하는 상황이 되어 국제결혼을 통한 여성 이주를 권장하고 있으며(강미연, 장인자, 2009), 필리핀 여성들도 국제결혼 자체에 대하여 거부감 없이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타국에 의한 식민통치를 받는 동안 이종족간 혼인이 많았기 때문이다(김민정, 2003). 그래서 필리핀 여성들은 현재의 어려움이나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해 때로는 가족을 위한 희생적 결단으로 이주를 결정하고 있다(강미연, 장인자, 2009; Oishi, 2005).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이주한 필리핀 여

성들 상당수가 한국생활 적응 과정에서 언어소통의 문제, 문화적 차이, 사회적인 냉대, 가정폭력, 경제적 빈곤, 자녀양육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한국염, 2007). 한국어를 습득하고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한국사회나 가정에 적응도 하기 전에 부모가 되는 경우가 많아(김연수, 2008)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즉 결혼 이주여성들은 새로운 문화에 적응할 시기에 자녀 출산과 자녀 양육이 맞물려 혼란스러움을 느끼며 자녀 육아의 고충에 대한 외로움, 두려움, 불안 등을 갖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다(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게다가 한국사회에서 자녀양육이란 어머니의 역할로 간주되기 때문에 언어장벽과 사회문화적 장벽을 갖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이 자녀양육에서 겪는 어려움은 한국인 일반가정에 비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서현, 이승은, 2007; 정은희, 2004).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는 바람직한 부모-자녀 간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며 자녀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하여(남인숙, 안숙희, 2011), 정체성 혼란, 언어습득 지연과 이해력 미숙, 학습 부진 등 다양한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배경의 외, 2010; 서현, 이승은, 2007).

특히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은 도시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에 비해 복지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취약하여 많은 불편함을 경험하며 가부장적 생활방식이 강한 농촌 특성상 문화적 차이와 경제적인 취약함으로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부모역할과 양육경험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사회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며 조화와 통합의 문제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현안이 되었다. 다문화 사회를 인정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한국사회는 여전히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의 가족문화와 한국문화에 순응해야 함을 강요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 동안은 한국의 가족문화, 양육태도 및 가치, 행동들을 다문화가정의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가르치는 교육위주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어 왔다(유혜령, 1999). 그러나 이주여성들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한쪽 문화의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함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성 속의 조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결혼이주여성들을 돕기 위한 방안은 서로간의 다른 가족문화, 양육태도 및 가치, 행동을 파악하여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국제결혼이주여성들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한국사회에서의 적응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 집단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와 가치체계에 근거한 양육경험을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경험과 비교하여 살펴보는 작업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차이를 인정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라 여겨진다.

지금까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을 한국인 비교집단을 설정하여 실시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며(김근영, 박금주, 배소영, 2009), 지금까지 대다수의 연구는 결혼이주를 통해 한국으로 이민 온 외국인 여성의 결혼만족도(권복순, 차보현, 2006), 가족관계(윤형숙, 2005), 양육관련 스트레스(김도희, 김성이, 신호진, 2007; 채혜경, 2008), 갈등유형(김진희, 박옥임, 2008;

박정숙, 김진희, 박옥임, 2007),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적응문제(박행모, 문승태, 2008; 양승민, 연문희, 2009) 등으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국가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결혼이주여성 전체를 대상으로 자녀양육에 관한 연구들이 대부분이다(전홍주, 배소영, 박금주, 2008; 현은애, 나종혜, 2009).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결혼생활 경험 연구(김현경, 신동주, 2008), 적응문제(김희주, 은선경, 2007), 갈등문제(윤형숙, 2005)에 관한 연구 등으로 매우 적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과 농촌 거주 한국인 결혼여성 집단을 대상으로 자녀양육경험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필리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이유는 첫째, 현재 취학 아동이 가장 많은 다문화가정은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출신가정과 베트남 가정이며, 그 다음으로 필리핀 가정이 많았다(김동엽, 2010). 둘째, 지방 농촌에는 필리핀 이주 여성들이 많이 거주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결혼여성을 대상으로 양육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경험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함으로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한국의 농촌사회에서 경험하는 자녀 양육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무엇인가? (2) 한국인 결혼 여성의 자녀양육 경험은 무엇인가? (3)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결혼여성이 양육시 경험하는 유사점은 무엇인가? (4) 필리

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이 양육시 경험하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자녀 양육 경험의 의미와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현상학적 접근은 특정한 현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그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와 구조를 탐색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Patton, 2002). 곧 인간은 ‘설명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닌 ‘이해되어야 하는 존재’로 여김으로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인간 삶과 연관된 주요 주제를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통해 경험의 의미와 본질을 찾아내는 것이다(신경림, 1997). 이러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개인이 경험하는 삶의 현상 그 자체를 밝히려는데 초점이 있기 보다는 개인이 그 현상을 경험하면서 그 현상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에 관심을 둔다(김분한 외, 1999). 따라서 현상학적 접근방법은 특정한 현상에 대하여 사람들의 경험, 의견, 느낌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진술이 현상학적 연구의 주된 자료가 되며(Kvale, 1996; Patton, 2002),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삶의 경험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자의 편견을 배제하고자 노력한다. Colaizzi 분석방법은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보다는 전체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초점을 맞춘 방법(김분한 외, 1999)으로 연구의 대

상인 특정 현상이나 그와 관련된 개인 경험에 관한 이론 개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자녀 양육의 의미를 탐색하고 이런 결과를 토대로 양국 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전체 참여자가 경험하는 현상의 의미를 추구하는 Colaizzi 방법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연구 참여자

연구목적과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 참여자 선정기준을 정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기준표본추출(criterion sampling)¹⁾을 사용하여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이주, 결혼, 출산, 양육을 경험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결혼, 출산, 양육을 경험한 한국인 여성으로 한다. 둘째, 자신의 경험을 반성적으로 회고하여 전달할 만큼 한국어 소통능력이 있어야 한다. 셋째, 국가는 필리핀 출신국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을 포함한다. 공동 연구자들은 N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농촌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연구 참여자들을 만났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15명, 한국인 결혼여성 15명 등 총 30명을 면접하였다. 이주여성의 평균 결혼기간은 11년이며 한국인 결혼여성의 평균 결혼기간은 12년이었으며,

1) 현상학적 연구방법은 표본추출방식 중에서도 모든 참여자들이 특정 현상을 필수적으로 경험하여야 하기 때문에 몇 개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기준표본추출이 적절하다(Creswell, 2010).

부부간 연령터울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8살, 한국인 결혼여성은 3살 차이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부부간 연령터울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학력은 고졸자 3명, 대학 중퇴자 1명, 나머지는 모두 대졸이었으며 한국인결혼여성의 학력은 고졸 6명, 나머지는 전문대졸 이상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결혼여성보다 학력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자료 수집 절차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09년 12월 1일부터 2010년 2월 22일까지 약 2개월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공동 연구자들은 개방적이고 반구조화 질문을 통해 각 연구 참여자별로 1-2시간 정도씩 2회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연구현상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위해 참여자들로부터 더 이상 새로운 자료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수집하였다. 주요한 면담 질문은 ‘농촌에서 자녀 양육은 어떻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남편은 자녀 양육에 어떤 도움을 줍니까?’ ‘자녀는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등이었다. 이와 같은 면담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양육 경험에 대한 느낌이나 생각,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하도록 하였다. 면담은 공동연구자 3인이 접촉하여 직접 면담하였다. 또한 공동연구자가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자료 분석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연구회의를 가짐으로 연구자 개인의 관점이 자료 해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4. 연구 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내용이 매우 자세하게 기술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대한 섬세한 윤리적 고려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와 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목적과 방법, 연구자들에 대한 소개와 연락처, 연구 참여에 대한 참여자의 자발성,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 보장, 비밀유지를 위한 익명 처리, 면담내용의 녹음 등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연구 참여자에 한하여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녹음된 면담내용의 필사 시에도 대상자들의 이름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특정 기호로 표시하며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5.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원자료를 축어록으로 옮긴 후 현상학적 연구 방법 중 Colaizzi (1978)가 개발한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자료에 대한 해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자간 분석 자료의 검토와 합의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였다. Colaizzi 분석방법에 따라 다음의 6단계를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5). 1단계에서 각 연구자는 자신이 면담한 참여자의 경험에 대한 전체적 느낌을 얻기 위해 필사된 면담내용을 반복적으로 읽은 후, 의미 있는 문장이나 구를 선택하였다. 2단계에서는 연구현상과 직접 관련된

표 1. 필리핀 여성 참여자와 한국인 여성 참여자

	필리핀 여성 참여자				한국인 여성 참여자			
	나이	학력	결혼기간	남편나이	나이	학력	결혼기간	남편나이
사례1	33	대졸	11	38	34	대졸	12	39
사례2	37	대졸	11	47	37	고졸	15	40
사례3	36	고졸	8	40	36	대졸	10	38
사례4	39	고졸	12	45	39	전문대졸	14	43
사례5	34	대졸	10	44	40	고졸	13	45
사례6	42	대졸	10	48	43	대졸	17	43
사례7	32	대졸	10	37	40	대졸	13	42
사례8	33	대졸	10	42	34	전문대졸	8	38
사례9	34	대졸	10	44	36	고졸	13	38
사례10	39	대졸	10	43	34	전문대졸	8	36
사례11	39	대학중퇴	12	44	45	고졸	20	49
사례12	42	대졸	12	52	41	고졸	12	46
사례13	36	대졸	14	55	37	대졸	12	41
사례14	44	고졸	15	50	36	고졸	12	39
사례15	32	대졸	6	39	31	대졸	6	36

진술, 구, 문장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들끼리 한데 묶은 진술문들의 공통된 속성을 탐색하고 구성적 의미를 도출하였다. 3단계에서는 각각의 주요 진술의 의미를 판독함으로써 의미를 구성하였다. 의미 구성은 애초의 기술에 존재했던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감춰진 의미를 발견하고 끄집어내는 것으로 연구자간 공유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연구자 회의를 가졌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구성적 의미를 합의, 수정하였다. 4단계에서는 구성된 의미의 종합으로부터 주제군을 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대상자의 기술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아내었다.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

의 결과를 통합하여 현상에 대한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지금까지의 범주를 통합하여 이주 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 경험에 대해 최종적인 기술을 하였다. 6단계에서는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경험 현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여 본질적 구조를 기술하는 최종적인 타당화 단계를 거쳤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 참여자에게 돌아가 구성된 최종적인 기술이 그들의 원래 경험과 동일한 의미인지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30명의 연구 참여자들이 최종 기술을 읽고, 자신들의 경험과 일치한다는 뜻을 밝혔다.

III. 연구결과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 여성의 양육 경험을 비교한 결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에서 나타난 의미진술은 총 364개였으며, 한국인 여성의 양육경험의 의미진술은 총 488개였고, 양국 집단의 의미진술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은 4개 범주, 7개 주제군, 19개 주제가 도출되었으며 한국인 결혼여성은 4개 범주, 8개 주제군, 19개 주제가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주제군과 주제는 표 2와 표 3과 같다.

1. 어머니 관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범주 1은 어머니 관련으로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의 2가지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군 1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은 자녀들이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하고 닮기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고 긍정적으로 사고하고 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역경을 헤쳐 나가며 살아가고 있었으며, 참여자들은 남편과의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혼을 생각하기도 했지만 자녀들이 자신들의 희망이고 삶의 이유이기 때문에 고통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주제군 2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도와주는 사람도 없이 이국땅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혼자 아이를 돌

보고 가사일을 하고 또 남편을 도와 농사일을 거들어야 하는 고단함을 호소하였다. 또한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어린자녀의 언어 습득시기에 자녀를 어린이집으로 보내 한국어 교육과 양육을 보육교사에게 일임하며 자녀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양육의 일차 책임자 자리를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말미암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자녀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엄마가 자신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끼며 엄마를 무시하였고, 엄마들은 자녀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섭섭함과 속상함을 느끼고 있었다. 자녀와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 의사소통으로 말미암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의 양육 참여시 자녀에 대한 답답한 마음을 체별로 표현하고 체벌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무능력한 남편 때문에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상황을 힘들어 하면서도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와 미래의 대학학비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었다.

한국인 결혼여성

범주 1은 어머니 관련으로 《한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의 2 가지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군 1 《한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은 자녀들이 어머니를 통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배우는 모습을 깨달으면서 자녀들에게 긍정적 모델 역할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부모

표 2.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

범주	주제군	주제	의미 진술(일부)
어 머 니 관 련	외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 역경을 헤쳐 나가는 모델역할	· 그냥 파이팅만해요. 안 된다 힘들다 그러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안 해요. 긍정적인 생각만...애들이 나를 관찰하고 있잖아요. 엄마 한국말 잘하면 아기도 한국말 잘하고 그러잖아요.
		· 고통을 참고 삶	· 그만두고 싶어요. 다 멈추고 싶었거든요. 제 남편과 이혼하고 새로 정착하고 싶었어요. 근데 애들 때문에 계속 살아야 해요.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	· 지지기반 없이 혼자 농사와 양육 담당의 버거움	· 제일 힘든 거는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애기를 눈에 데리고 와야 하고 농사 일에 집안일, 아기랑 함께 할 시간이 없고.. 친정엄마 생각 많이 했어요. 혼 자 하니 너무 어려워요.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자녀학습에 도움 못 줌	· 한국말을 잘 못하잖아요. 가끔씩 숙제를 도와주고 싶지만 못 도와줘서 가슴 이 너무 아프고 애들에게 존댓말도 못 가르치고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체벌 강화	· 애들이 싸울 때 설명을 하고 싶는데 제가 한국말이 안 나오니깐 무조건 때 려요. 상대에게 정확하게 말하는 게 어려워요.
		·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자녀에게 무시당함	· 제 발음이 부족하니깐... '엄마 너무 시시하다. 한글 바보' 그래요. 애가 저에 게 교육이나 한글 기대하지 않아요. 섭섭해요.
		· 경제적 어려움	· 애들 셋 키우는데 월급이 백만 원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받으 면 약 소용없다고, 몇 달 쉬라고 하는데, 제가 쉬면 우리 애들 어떻게 해요. 제 가 쉬면 필요한 것도 못 사주고
	자녀에 대한 문제	· 정서장애 문제	· 2살 때부터 강아지 인형을 맨 날 안고 뽀뽀하면서 자요. 어떻게 해야 해요? 곰 인형을 사줘도 싫다고 강아지만 찾아요. · 6, 7살 때까지 손을 안 빨면 잠을 못 자요. 학교가야 하는데 담요 없으면 잠 을 못 자요.
		· 언어장애 문제	· 말이 느려 병원에서 검사했는데, 아이가 자폐가 있다고. 제가 한국말을 몰라 서 밖에 안 데리고 나갔어요. '엄마, 엄마' 아니면 '오보, 오보'라고 말해요. 내 딸 멍청이 장애인 면허 받았어요.
자 녀 관 련	자녀에 대한 기대	· 교우관계 문제	· 다른 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왕따 당했어요. 나도 걱정이 되요. 아이가 부족하면 왕따 당하잖아요. 한글만 열심히 가르치려고 해요.
		· 영어 능통 기대	· 우리 아이는 외할머니가 오면 영어로 말해요. 제가 하루에 한 시간씩 영어를 가르쳐요.
		· 필리핀 문화에 호감 갖기 기대	· 우리 애는 방학 때마다 필리핀에 보내요. 3번 정도 보냈어요. · 애를 필리핀에서 키워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필리핀 국제학교에 보내고 싶 어요....
	자녀의 존재	· 글로벌 인재기대	· 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필리핀에서 살 수도 있고, 아 프리카 같은데서 봉사활동도 할 수 있고...
		· 행복과 희망의 존재	· 힘들어도..애들 보면 힘나고 희망, hope, 아이의 존재는 my life. 애들만 봐도 행복해요.
남 편 관 련	양육 지원 부족	· 소극적인 자녀교육	· 남편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말만하고 아이들 안 가르쳐줘요. 나도 모르는 데.... '학원에 보내' 아니면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가' 이렇게 말해요.
		· 미성숙한 양육	· 애들에게 맨 날 큰소리하고 딸에게 '야 이년아' 욕하고 아들에게는 뽀 때리 고 발로 찼어요. 아이에게 잘 해주다가 갑자기 화를 내요.
생 활 관 련	불만족 스러운 농촌 삶	· 교류할 사람 없음	· 시골이어서 아이가 친구도 없어요. · 저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 교육환경 열악	· 애가 시골 사니깐 그 정도에 머무르는 것 같아요. 도시 애들이랑 대결해야한 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 도시로 이사 희망	· 큰애가 일등 했다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시골에 사니깐.... 다른 도시 애들이랑 대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표 3.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경험

범주	주제군	주제	의미 진술(일부)
어 머 니 관 련	한국인 어머니로서의 책임감	· 좋은 모델 역할	· 아. 내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애들이 저러는구나. 애들을 보면서 저의 역할을 많이 생각해요.
		· 독립적 존재로 성장시키기	· 요즘 애들이 나약하잖아요. 엄마, 아빠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혼자 해쳐 나갈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	· 자녀 학습 지도 어려움	·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크면 과외를 시키든지 학원을 다니게 해야지 안 그러면 학습이 뒤쳐져요.
		· 대화부족으로 인한 갈등발생	· 대화가 많이 필요한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그런 게 힘이 드네요.
자 녀 관 련	자녀에 대한 문제	· 학업 문제	· 공부가 걱정이예요. 책을 보려하지 않아요. · 좀 더 열심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네요.
		· 학교 적응 문제	· 친해지면 잘 어울리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적응하는데 좀 힘들어 하는 것 같아 걱정이예요.
	자녀에 대한 기대	· 졸업 후 좋은 결과 기대	· 좋은 성적을 얻으면 좋겠고,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고, 좋은 직장에 갔으면 하는 게 엄마의 소망이죠.
		· 행복한 삶 살기 기대	· 스스로 행복했으면 좋겠고.... 즐겁게 사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해요.
		· 대리충족 기대	· 애들이 엄마가 못했던 것을 이뤄줬으면 하고 애들에게 바래요. 저의 미충족한 소망을 성취하는 대리인이죠.
	자녀의 존재	· 소중한 존재	· 아이들은 나에게 보물 같은 존재죠. 내가 원해서만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선물이죠.
		· 힘든 존재	· 풀기 힘든 수학문제, 풀리지 않는 숙제 같아요. ·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남 편 관 련	양육 지원 부족	· 무관심한 양육	· 남편은 솔직히 도움 같은 거 전혀 없어요. · 혼자 아이들을 돌보니 그런 점이 어려워요.
		· 자녀와 부정적 관계 형성	· 아빠하고 아이들하고 애정이 부족하다고 해야 할까. 아빠가 안 들어와도 애들이 찾지 않아요.
	양육 지원	· 적극적인 교육 참여	· 남편은 아이 숙제 봐주고 만들기도 도와줘요. · 남편은 책을 읽어줄 때 최선을 다해 읽어줘요.
		· 적극적인 놀이 참여	· 남편은 애들하고 몸으로 움직이면서 적극적으로 많이 놀아주고 운동도 같이 해줘요.
		· 자녀와 긍정적 관계 형성	· 아빠하고 아이들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이 아빠를 잘 따르고 많이 찾아요.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해요.
생 활 관 련	불만족스러운 농촌 삶	· 교육환경 열악	· 학교 선택의 폭이 좁다는 게 불편한 것 같아요. 학교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니깐요. 학원선택의 기회도 부족해요.
		· 문화적 시설 부족	· 문화적인 환경이 좀 열악해서 문화적인 생활을 많이 못 누린다는 거죠. 영화나 공연을 보려면 차를 타고 많이 나가야 한다는 거죠.
		· 도시로 이사 희망	· 아이를 위해 도시로 이사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이사하는 것이 어렵지만요.

의 도움 없이 독립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엄마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군 2 《양육의 현실적 어려움》은 자녀들이 고학년이 되어 교과과정의 학습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가정에서 엄마의 지도가 쉽

지 않음을 걱정하였으며, 자녀들과 대화를 원하지만 자녀들의 대화 기피로 발생하는 갈등 상황을 힘들어 하였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

어머니를 모델링하며 닮아가는 자녀에게 좋은 모델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책임감을 느끼는 측면은 양국 어머니가 동일하였다. 다만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역경을 극복해 나가며 자녀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한국인 결혼여성들이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없고 자녀와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표현하였다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결혼 후 한국 적응, 남편과의 갈등으로 힘든 삶 속에서도 자신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자녀를 생각하며 참고 삶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녀와 부정적 관계를 형성한 후 자녀에게 무시당하는 현실을 힘들어 하였다.

이 같이 필리핀 이주여성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자녀들의 학습지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여 자녀들 교육에서 주변인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자녀들의 무시하는 태도에 소외감과 섭섭함을 느끼면서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녀에게 말이 통하지 않을 때는 체벌이 강화되는 악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나 이웃과 같은 사회적 지지는 삶의 중요한 자원이 된다. 하지

만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주위 지지자원이 매우 미약하여 아이를 맡기거나 어려운 일 등 일상생활에서 이웃과의 교류가 거의 없다는 응답이 62%~75%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설동훈 외, 2005)와 결혼 생활이 7년 이상이지만 한국 지인들이 거의 없다는 연구결과(김희주, 은성경, 2007)와 같이 이들은 이웃으로부터 고립되어 살면서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양육과 가사 일과 동시에 농사일까지 담당하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분류되었고, 44.2%는 최저생계비의 50% 수준에도 못 미치는 연구결과(설동훈 외, 2005)와 국제결혼을 하는 남성들은 농촌에서도 대체로 매우 가난한 사람들이므로 여성이 일을 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거나 가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윤형숙(2005)의 연구결과와 같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남편 대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필리핀 가족관계는 모 중심 관계로(김민정, 2007), 어머니는 가사일과 정서적 지원 뿐 아니라 경제적 지원자로서까지 확장된다(Aguilar, 1996)는 관점에서 볼 때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 경제적 빈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통해 강한 생활력을 지닌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 자녀 관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범주 2는 자녀 관련이다.

이 범주는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의 존재》의 3가지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군 1 《자녀에 대한 문제》는 자녀가 인형이나 담요와 같은 중간대상에 집착하거나 낮가림이 심해 엄마에게만 집착하는 정서장애를 보이는 자녀에게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 어려워하였다. 또한 한국어를 습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 후 자녀를 출산 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에게 한국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부와 교류 없이 자녀와 집에서만 생활한 결과 자녀들이 말이 늦고 심각한 언어장애가 발생한 결과에 당황해하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학교에서 자녀들이 왕따를 당하거나 놀림을 당하지 않고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들의 학습에 신경을 많이 기울이고 있었다.

주제군 2 《자녀에 대한 기대》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어인 타갈로그어를 사용하기 보다는 자녀들에게 하루에 1시간 이상씩 영어를 가르치면서 자녀가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였고 자녀들이 필리핀 문화에 호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자녀들을 방학 때마다 필리핀에 보내 필리핀 문화를 경험하며 필리핀 정체성 갖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영어사용 능력과 필리핀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통해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였다.

주제군 3 《자녀의 존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낯선 땅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자녀들을 혼자 키우는 힘든 상황에서 자녀들을

삶의 희망, 삶의 이유, 행복,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에게 자녀란 이국땅에서 힘든 역경을 극복하게 하는 원동력이었다.

한국인 결혼여성

한국인 여성의 범주 2는 자녀 관련 부분이다.

이 범주는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에 대한 기대》, 《자녀의 존재》의 3가지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군 1 《자녀에 대한 문제》는 자녀들에게 뛰어난 학습 결과를 기대하지만 자녀들이 좋은 성취 결과를 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 자녀들이 새로운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을 문제없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교우관계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어려움을 나타내었다.

주제군 2 《자녀에 대한 기대》는 한국인 어머니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 좋은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좋은 직장에 입사하여 떳떳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고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끼며 행복한 삶을 살기 기대하였다. 또한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들이 대신 성취해 주기를 기대하였다. 한국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을 하나의 독립적인 존재로 인식하기보다는 자녀를 자신의 대리인으로 인식하여 어머니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가 달성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제군 3 《자녀의 존재》는 한국인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자녀의 존재는 선물이고, 희망으로 엄마의 인생에 있어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자녀란 해답 없는 수학문제처럼 자신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존재로도

인식하고 있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의 정서적 측면과 언어장애, 교우관계 측면을 걱정하고 있으며, 엄마와 애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자녀들이 담요나 인형 같은 중간대상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일 때 올바른 양육방법을 몰라 답답해했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한국어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부활동을 피하고 자녀와 집에서만 생활한 결과 자녀들은 결정적 시기에 자극을 받아 습득해야 할 한국어 습득 기회를 놓쳐 언어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어머니 언어사용이 유아의 언어발달에 매개 역할을 한다는 보고(Hoff & Naigles, 2002; Weizman & Snow, 2001)와 같이 어머니의 미숙한 언어능력으로 자녀의 언어적 발달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정은희, 2004)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필리핀 문화에 대한 호감을 갖고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키워 국제화 사회에서 글로벌적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모국어인 따갈로그어, 영어, 한국어 등 세 가지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녀들에게는 유독 영어만 가르치고 있다. 필리핀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영어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다문화 감수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가 되는데 보다 유리한 자원을 획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강미연, 장인자, 2009). 따라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녀들이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어 국제화 사회에 진출하여 다양한 자기 몫을 담당하며 타인에게 도

움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인 결혼여성들은 자녀의 학업 문제와 학교 적응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고 있었다. 한국인 어머니들에게 자녀란 자신이 이루지 못한 욕구를 성취시켜주는 대리인으로 기대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자녀들이 좋은 성적,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어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를 소망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인 결혼 여성은 자기 욕구와 자녀 욕구가 충족되기를 기대하였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자신들의 한국어 능력 부족과 양육지식 부족으로 자녀들에게 정서적 문제와 언어적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나타내었다면, 한국인 결혼여성들은 자녀들의 원만한 교우관계와 높은 학업 성취를 통해 상급 학교에 진학하여 만족감을 얻기를 기대하였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인식하는 자녀란 소중하고 귀한 대상이다.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자녀란 한국과 자신을 연결시켜주고 남편의 신뢰를 받게 하는 중요한 연결고리를 하는 역할이다(구수연, 2007).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 사회의 통합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자녀가 결혼이주 여성에게 유일한 혈연관계이며 가족 내 지위 향상과 가족유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지형, 2009; 강미연, 장인자, 2009). 따라서 필리핀 이주여성에게 자녀란 외로운 타국 삶에서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며,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에게 자녀란

특별한 의미와 존재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응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이에 비해 한국인 어머니들은 자녀의 존재를 선물, 보물과 같이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에 대해 양가적인 마음을 볼 수 있었다.

3. 남편 관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범주 3은 남편관련으로 《양육지원 부족》 1가지 주제 군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군 1 《양육지원 부족》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은 자녀학습지도에 참여하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거나 타인에게 자녀 학습지도를 떠넘기거나 미성숙한 양육태도를 보였다. 예를 들면 기분이 좋을 때는 자녀들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다가 기분이 좋지 않으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자녀들에게 심한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결혼여성

한국 결혼여성의 범주 3은 남편관련으로 《양육지원 부족》과 《양육지원》의 2가지 주제 군으로 구성되었다.

주제군 1 《양육지원 부족》은 한국인 여성의 남편들도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부인 혼자 자녀양육을 감당하게 하는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이거나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자녀가 아빠를 중요하지 않은 존재

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제군 2 《양육지원》은 아빠가 자녀의 과제 및 학습을 직접 자녀에게 지도하거나 자녀 눈높이에 맞춰 적극적인 놀이로 놀아주고 자녀와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한국인 결혼여성 남편들은 아빠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며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보였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

한국인 결혼여성의 남편과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남편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은 남편의 지원 부족이었다. 양쪽 남편들이 보인 무관심한 양육 태도는 양육에 참여하지 않고 자녀의 교육과 돌봄을 아내에게 떠맡기고 아내에게 책임전가를 하였다. 남편들의 이러한 무관심한 양육태도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결혼여성보다 더 많이 힘들어했다. 이들은 유창하지 않은 한국어로 자녀들의 학습과 양육을 혼자 담당해야하는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남편의 양육참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고 한국인 결혼여성의 경우에만 나타났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은 자녀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에 비해 한국인 여성의 남편들은 무관심한 양육태도를 보이는 아빠들도 있었으나, 자녀와 긍정적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인 교육 참여와 놀이참여를 통해 양육에 참여하는 아빠들도 있었다.

4. 생활 관련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범주 4는 생활 관련으로 《불만족스러운 농촌 삶》 1가지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범주 4는 생활 관련으로 《불만족스러운 농촌 삶》 1가지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주제묶음 1 《불만족스러운 농촌 삶》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농촌사회에서 살아갈 때 교류할 사람이 없어 느끼는 고립감과 불편함, 자녀들도 친하게 지낼 친구가 없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나타내었다. 또한 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촌에서 자녀를 교육 시키는 불안함과 걱정을 표현하며 자녀를 위해 대도시로 이사하여 교육 시키고 싶은 희망을 나타내었다.

한국인 결혼여성

주제묶음 1 《불만족스러운 농촌 삶》은 농촌의 학교교육 환경이 대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학원을 선택할 수 있는 폭도 많이 부족하다는 측면에 불만을 토로했으며 농촌에서의 문화적 환경 부족으로 자녀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대도시로 이사하여 자녀들을 공부 시키고 싶어 했다. 한국인 결혼여성들이 느끼는 농촌에서의 삶은 도시생활에 비해 문화 환경과 교육 환경 열악으로 인한 불만족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농촌에서의 삶을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한 이유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농촌사회가 다문화 가정과 교류를 하지 않아 도움을 받거나 친교를 나눌 이웃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측면이 양국의 차이점이라면 대도시에 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농촌에서 교육적 환경을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측면에 대한 불만족감으로 대도시로 이사하고 싶은 마음은 양국 결혼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부분이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자녀 양육 경험과 한국인 결혼여성들의 자녀 양육 경험을 비교분석하여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들의 양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조력 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양국 여성들의 양육경험에서 의미를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15명, 한국인결혼여성 15명이 선정되었고 자료 분석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연구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에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은 4개 범주, 7개 주제군으로 구성되었으며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경험 의미는 4개 범주, 8개의 주제군으로 구성되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양육경험과 한국인 결혼여성의 양육경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양국 어머니들이 느끼는 자녀에 대한

책임감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모델역할을 하려는 측면은 공통적인 측면이었으나, 한국인 어머니에 비해 필리핀 이주여성들은 역경을 극복하며 인내하는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모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필리핀 이주여성들이 자녀를 위해 결혼생활을 극복해 나가는 강한 모성애의 모습은 김희주와 은선경(2007)의 연구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필리핀 본국에서 이혼이 일상적이지 않은 사회규범으로 작용(김현경, 신동주, 2008)하기 때문이며 또한 강한 모성애를 통해 자녀들을 책임지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녀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필리핀 어머니와 한국인 어머니의 공통점은 자녀의 학업적응과 교우 관계를 걱정하는 측면이었으며, 양국 차이점은 한국인 결혼여성의 교육열과 같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도 자녀 교육에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지만(박은애, 2007; 이진숙, 2007), 이러한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제한된 한국어 능력 때문에 자녀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고(전홍주 외, 2008), 무시당하며 소외감을 느끼고 있었다. 원활하지 않은 한국어 능력은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양육의 현실적인 어려움에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 결혼여성에 비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경제적인 빈곤과 관련하여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반 이상인 52.9%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구소득으로 생활(설동훈 외, 2005)하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이 이혼을 선택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필리핀 가족관과 관련 지어 볼 수 있다. 필리핀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를 중요시 하며, 가족의 이해가 개인의 이해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간주된다(김희주, 은선경, 2007; Illo, 1992). 또한 경제적 빈곤을 극복 하려는 원동력은 강한 생활력이라는 김희주와 은선경(2007)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경제적으로 무능한 남편을 대신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시키며 가정을 유지시키고 있었다. 이와 같이 가족을 중요시하는 가치관은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국 땅에서 자녀 양육시 경험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버팀목이 되며, 가족중심에 기초한 강한 생활력은 자녀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과 강한 생활력으로 경제적 빈곤생활을 이겨내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녀에 대한 기대부면에서 양육경험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필리핀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영어에 능통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인 어머니들은 자녀들이 자기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기대하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들이 농촌에 거주하는 한국인 결혼 여성들에 비해 학력 수준이 다소 높은 이유와 자유로운 영어 구사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지며, 한국인 결혼여성들은 농촌에 거주하는 특성상 글로벌적인 시야보다는 상급학교 진학과 같은 현재문제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자녀 존재에 대한 양국 어머니들의 공통점은 소중한 존재라는 점이다. 양국 어머

니들에게 자녀란 행복과 희망을 주는 소중한 존재이다. 특히 필리핀 어머니들에게 자녀란 이국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힘이고, 결혼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며 심리적 위안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결혼생활 중에 태어난 자녀란 한국과 자신을 연결시켜주고 남편의 신뢰를 받게 하는 끈 역할(구수연, 2007)을 하며 자녀를 낳고 정을 쏟으면서 남편들의 비협조적인 양육태도나 불만을 잊게 하는 역할(윤희숙, 2005)을 하므로 남편보다는 한국인으로 성장할 자녀에게 희망을 갖으며 소중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이점은 한국인 결혼여성들은 자녀들의 존재에 대해 자신을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반응이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서 나오지 않은 이유는 이들에게 자녀란 자신의 유일한 혈육으로 자녀를 통해 진정으로 가족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통로이며 삶의 원동력과 삶의 희망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대답이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여섯째, 양국의 어머니들은 공통적으로 남편들의 양육지원 부족에 불만을 나타내었다. 양국 남편들은 모두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양육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남편의 소극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농촌에 거주하는 남편들이 양육방법을 모르거나 바람직한 양육방법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또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남편들은 잦은 폭언과 폭행을 나타냈다. 다문화 가정의 폭력발생률은 47.7%로 일반 가정의 폭력발생률 40.3%보다 무려 7.4%가 더 높은 것(전북발전연구원,

2010)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인 일반 가정에서도 폭언과 폭행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한국인 결혼여성 가정에서 남편의 가정폭행이 보고 되지 않은 것은 한국인 어머니들이 수치심 때문에 보고 하지 않았거나,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남편 양육 참여에 대한 부분은 양국 여성들이 다르게 경험하고 있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남편들이 양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으나 한국인 결혼여성들은 남편들이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동일한 농촌에 거주하는 남편들에게서 차이점이 발생한 이유는 첫째, 나이차에 의한 요인이라고 여겨진다. 이주여성과 결혼한 남편들의 평균나이는 45세이었으며, 한국인 여성들의 남편 평균나이는 38세로 7세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남편들의 나이가 이주여성의 남편들보다 상대적으로 젊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가부장적 가치관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필리핀이주여성의 남편들이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농촌에서 가부장적 가치관에 더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여겨진다. 셋째, 국제결혼가정의 52.9%가 최저빈곤층으로 분류된다는 설동훈 외(2005)의 연구결과와 이주여성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을 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통해 경제적 빈곤을 경험하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본 연구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 결혼여성들이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조명하여 봄으로 한국 사회

내 필리핀 이주결혼여성들의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점을 파악하여 한국사회 적응을 돕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능력 부족은 자녀 양육 시 주변인으로 전락하게 하며 또한 자녀들의 언어장애와 학습능력 저하와 같은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하다. 현재 이주여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복지관,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농촌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먼 곳까지 가서 교육을 받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농촌에 사는 특수성을 이해한다면 한국어 교육이 좀 더 작은 마을단위에서 실시되거나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안에서 진행된다면 잦은 접촉을 통해 한국어 학습기회가 많아져서 쉽게 이동할 수 없는 농촌 거주 필리핀이주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어린자녀들을 데리고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를 통해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둘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은 출산 후 올바른 양육 방법을 몰라 힘들어하지만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농촌사회에 자문을 받을 기회가 많지 않다. 잘못된 양육방식은 자녀들의 정서적 문제와 언어적 장애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므로 출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확대·강화 운영할 필요성과 출산 후 자녀의 생활과 건강, 성장을 확인해 줄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양육 멘토링을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양육에 관련된 어려움을 언제든지 문의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방문형 양육 교육 시스템을 설치하여 이주여성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바람직한 돌봄과 적절한 언어 자극을 통해 아이들을 성장시키는지 확인하며 개입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결혼이민자 가정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자녀와 올바른 관계형성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올바른 아버지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대부분이 어머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감안할 때 아버지를 대상으로 자녀양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아버지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한기 때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올바른 자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은 전남 지역 농촌에 거주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결혼여성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므로 다른 국가의 여성들에게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경험이 다른 문화에도 적용되는지 탐색하는 후속 연구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의의는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의 양육경험과 한국인 여성들의 양육경험을 비교하여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 경험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한국적응과 자녀양육을 돕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측면이다.

참고문헌

- 강미연, 장인자 (2009). 필리핀 결혼 이주 여성의 ‘엄마 되기’. *현대사회와 문화*, 28, 73-103.
- 구수연 (2007). 어린이집 생활을 통해 본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와 가정에 대한 이해. *열린유아교육연구*, 10(12), 95-124.
- 권복순, 차보현 (2006). 농촌지역 코시안 가정 주부의 사사소통능력, 문화적 정체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8, 109-134.
- 김근영, 박금주, 배소영 (2009). 다문화가정 연 구개관과 향후 방향성.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3), 571-597.
- 김도희, 김성이, 신효진 (2007). 농촌지역 결혼 이민여성의 배우자 지지와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9, 53-78.
- 김동엽 (2010). 필리핀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초 국가적 행태에 관한 연구. *동남아시아연구*, 20(2), 31-72.
- 김민정 (2003). 필리핀 이주 노동자의 한국남편 되기. 35차 한국문화인류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민정 (2007). 한국 가족의 변화와 지방 사회의 필리핀 아내. *페미니즘연구*, 7(2), 213-248.
- 김분한, 김금자, 박인숙, 이금재, 김진경, 홍정주, 이미향, 유인영, 이희영 (1999). 현상학적 연구방법의 비교고찰: Giorgi, Colaizzi, van Kaam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간호학회지*, 29(6), 1208-1220.
- 김연수 (2008).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탄력적 부모되기 프로그램 적용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4, 189-222.
- 김지현, 오진아, 윤채민, 이지형 (200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양육경험.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2(1), 46-60.
- 김진희, 박옥임 (2008). 농촌과 도시지역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 비교: 전라남도 지역을 중심으로. *농촌사회*, 18, 127-160.
- 김현경, 신동주 (2008).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한국결혼생활 현상에 관한 연구. *지역사회생활과학지*, 19(4), 519-535.
- 김희주, 은선경 (2007). 결혼이주여성의 적응을 위한 대처전략에 관한 사례연구. *사회복지연구*, 35, 33-66.
- 남인숙, 안숙희 (2011). 도시와 농촌거주 결혼이주여성의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및 결혼 만족도 비교.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7(2), 99-108.
- 박은애 (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실태 조사연구: 경상남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정숙, 김진희, 박옥임 (2007). 국제결혼 이주 여성의 가족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 59-171.
- 박행모, 문승태 (2008).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 여성들의 사회생활 적응 교육을 위한 실태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0, 69-71.
- 배경의, 이경혜, 김영희, 김 수, 김희경, 김지현 (2010).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자녀양육

- 행위와 양육효능감. 아동간호학회지, 16(3), 175-183.
- 서현, 이승은 (2007).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어려움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25-47.
- 설동훈, 김운태, 김현미, 윤홍식, 이해경, 임경택, 정기선, 주영수, 한구수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송미경, 지승희, 조은경, 임영선 (2008). 다문화 가정 외국인 모의 부모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459-517.
- 신경림 (1997). 질적 간호연구방법.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신경림, 조명옥, 양진향 (2005). 질적연구방법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양승민, 연문희 (2009). 농촌지역 결혼이민여성의 스트레스 요인과 반응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4), 943-966.
- 유혜령 (1999). 소수 민족 유아의 유치원 생활 경험. 교육인류학 연구, 2(2), 139-170.
- 윤형숙 (2005). 외국인 출신 농촌주부들의 갈등과 적응. 지방사와 지방문화, 8(2), 299-339.
- 이진숙 (2007). 국제결혼가정의 자녀양육실태와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2(6), 21-42.
- 전북발전연구원 (20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해야. 이슈브리핑, 10호.
- 전홍주, 배소영, 광금주 (2008). 결혼이민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지원의 실제와 의미. 가족과 문화, 20(3), 161-186.
- 정은희 (2004). 농촌지역 국제결혼 가정 아동의 언어발달과 언어환경. 언어치료연구, 13(3), 33-52.
- 채혜경 (2008). 결혼이민자가정 유아의 문해능력과 가정문해환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2011). 국내 통계 자료. <http://www.immigration.go.kr/HP/TIMM/>
- 통계청 (2010). 국내·국제 통계 자료. http://kosis.kr/abroad/abroad_01List.jsp
- 한국염 (2007). 이주여성,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주민이다. 참여정부 4년, 여성의 삶은 나아졌는가. 한국인결혼여성단체연합 여성정책 평가 및 정책제언 토론회 자료집, 100-113. 2월 22일. 서울:만해 NGO 교육센터.
- 현은애, 나종혜 (2009).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 양육 어려움과 적응 프로그램 요구도. 한국생활과학회지, 18(3), 675-687.
- Aguilar, D. D. (1996). Ambiguities of Motherhood in the Philippines. *Women and Culture Asia Pacific Women's Journal* (Institute of Women's Studies. St. Scholastica's). 89-104.
- Colaizzi, F. E.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cal views it. In Valle, R. S. King, M.(ed.),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 (2010).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서울:학지사 (원본발간일, 1998).
- Hoff, E., & Naigles, L. (2002). How children use

- input in acquiring a lexicon. *Child Development*, 73, 418-433.
- Illo, J. F. (1992). Redefining the 'Maybahay' or Housewife: Reflections on the Nature of Women's Work in Philippines. *Cross Cultural Perspectives on Women*, 14, 209-226.
- Kvale, S. (1996). *Interviews: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interviewing* Thousand Oak, CA: Sage.
- Oishi, N. (2005). *Women in Motion: Globalization, State Policies and Labor Migr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s* (3rd ed). Thousand Oak, CA: Sage.
- Weizman, Z. O., & Snow, C. E. (2001). Lexical input as related to children's vocabulary acquisition: Effect of sophisticated exposure and support for meaning. *Development Psychology*, 37, 265-279.

1차 원고접수 : 2011. 10. 10

수정 원고접수 : 2011. 11. 16

최종 게재결정 : 2011. 12. 1

The experiences of child-rearing by Filipino Immigrant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Korea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 focus on the experiences of rural women

Eun min Park

Dept. of Psychology Counseling

Sung soo Kim

Dept. of Speech Therapy
Dongshin University

Sun hee Park

Dept. of Social 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etter understand the perceptions of child-rearing as experienced by Filipino women married to Korean men and Korea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living in a small local city.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30 participants, including 15 married Filipino women and 15 married Korean women were selected and were then interviewed in-depth. The research participants all had children. Data were collected by means of in-depth interview and analyzed based on Colaizzi's phenomenological method. The final 4 categories, 7 clusters of themes, were the child-rearing experiences of Filipino married women, the final 4 categories, 8 clusters of themes were based on the child-rearing experiences of Korean married women. The final results revealed 4 categories of care experiences for the Filipino married women and Korean married women, consisting of 'mother', 'children', 'husband', 'life'. Both the similarities and the differences regarding the respective child-rearing experiences of Filipino married women and Korean married women were discussed, as were suggestions for relevant support plans and systems for such women.

Key words : Filipino women married to Korean men, Korean women married to Korean men, child-rearing experience, phenomenological method.